

생활정보 인식 및 이용

: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The Perception and Use of Living Information

: Suggestion for a 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심 영(Young Sh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for a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The survey data on a sample of three hundred and eighty-four married respondents with at least one child in elementary school that were collected for 15 days from April 16 to April 30 of 2010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for a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Two aspects ought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 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One is the supply aspect of the 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this encompasses the usage of facilities in the community, the residents in the community as leaders and the user-friendly living information. The other is the user aspect of the living information, which involves the education on living information for the residents in the community.

▲주제어(Key Words) : 생활정보(living information),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가족친화적 생활환경(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I. 서론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맞벌이가구의 증가, 결혼기피 및 만혼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단독가구의 증가, 가족구성원들 뿐 아니라 이웃들 간의 단절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과거 일 중심적 생활 패러다임에서 일, 돌봄 그리고 여가가 상호 병존하는 생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일과 가족이 양립 가능한 직장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의미있는 삶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이 2007년 제정되었고, 가족친

화 기업 지원,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역사회의 가족돌봄 환경 조성,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본계획 조성 시행령'이 2008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었다. 이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가족친화적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관련 제도,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 및 서비스(이하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로 통칭함)가 기업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되며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탄력근무제,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 휴가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h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377-3 Musimseoro, Heungduk-gu, Cheongju 361-742, Korea, tel: +82-43-299-8764, E-mail: syoung@seowon.ac.kr

및 휴직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사회 의 경우, 아동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양육지원 제도, 사회서비스 제도, 이웃사촌·한가족 사업, 가족사랑·이웃사랑, 가족품앗이 사업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각종 보육시설 등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혹은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산과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과연 지역사회 가족들이 가족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적시에 이용되고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가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러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즉,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지원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획득의 문제와 관련된다. 지역사회 가족들이 필요한 혹은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일 지역사회 가족들이 가족친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원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다면, 혹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혹은 제공되더라도 충분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산과 더불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 혹은 그 가족구성원들은 그 서비스의 존재, 이용장소 등과 같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다. 즉,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제공자 측면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 혹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적시에 알리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산 측면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획득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산 측면과 더불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획득 측면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 이러한 정보 제공 및 획득 측면은 다소 간과되는 경향으로 특히,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¹⁾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여건(일명 생활정보 환경)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생활정보 환경이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여건(일명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먼저 가족친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한 요소로서 생활정보 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비록 탐색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던 생활정보 환경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생활정보 환경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즉,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무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먼저 생활정보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개념화하고자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일과 가정을 원활히 양립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등장한 개념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기존 문헌과 네트워크 이론 문헌을 고찰한다. 이어 생활정보 환경이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생활정보 환경 즉, 가족친화적 생활정보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여건을 제시하고자 소비자정보 문헌을 살펴본다.

1.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여기에서는 기존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개념과 네트워크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초점인 생활정

1) 생활정보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는 의미로 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Kim, Jang & Ju,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생활정보로 한다.

보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측면에서 기존 개념의 한계를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생활정보 환경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활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하고 있는 주위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며, ‘친화적’의 사전적 의미는 잘 어울린다 혹은 조화롭다로 여기에 ‘가족’을 덧붙인 ‘가족친화적’은 가족에 잘 어울린다 혹은 조화롭다를 의미한다(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 2002).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개념을 짚어보면 주위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가족 혹은 가족생활에 잘 어울린다 혹은 조화롭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개념은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가족 및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을 원활히 양립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등장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Park(2007)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마을환경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족친화적 마을을 구성하는 시설 및 공간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이 계획되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하였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2008) 제 2조 1항은 가족이 일과 가정을 자유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노인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Lee, et al.(2009)은 가족친화적 마을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살고 싶은 마을로 규정하며, 가족친화적 마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족친화적 마을 조성은 다양한 가족의 공존 및 가족에게 필요한 환경 및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행정과 지역사회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Lee, et al., 2009). Kang(2007) 또한 가족친화 마을은 평온하고 쾌적한 가족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가족친화 마을로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개념 및 그 강조점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여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주위의 환경이 지닌 조건이나 상황이 가족생활에 잘 어울리는 혹은 조화로운 즉, 가족이 일과 가정을 자유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노인 및 가족 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지원하는 환경 즉, 가족생활에 잘 어울리는 환경으로, 이러한 환경이 가족친화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한 보행거리, 평탄한 거리 등의 물리적 안전성과 범죄 등에 대한 아동, 여성, 노인의 노출 금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안전성, 둘째, 필요한 시

설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거리, 절차나 방법 등이 이용자를 배려하는 이용 상의 편리성, 셋째, 물리적, 시간적 및 비용적 측면에서의 이용가능성 제고의 접근성, 넷째, 공원, 녹지조성, 보행자 중심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삶과 관련된 쾌적성이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2008) 제 2조 4항은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공간의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를 강조한다. Park(2007) 또한 가족친화 마을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및 시설이 제공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과 오픈 스페이스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가족친화적 마을의 구성요소로서 시설 및 공간 네트워크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강조하였다. Kang(2007)은 가족친화 마을은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부부생활, 임신 및 육아 등의 아동양육, 고령자 등 가족구성원 상호 간 돌봄의 가족책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시설, 설비 및 공간 등 물리적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Kang(2007)의 지적은 곧 가족친화 마을의 구성요소로서 물리적 환경 요소와 함께 인적 네트워크 환경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 Hong, et al.(2007)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구성요소로 제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지적하였다. Hong, et al.(2007)이 지적하는 서비스인프라는 시설 및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 요소가 담아내야 할 가족친화 관련 비물리적 환경 즉,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요소를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연결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가족들이 위급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 생활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적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시사한다.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위한 모델 및 핵심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Cha(2010) 또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의 핵심요소인 주민의 공동체적 유대를 통해 다양한 정보, 지식 및 정서적 자원들이 교환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가족친화 마을의 구성요소로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정보 교환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하면,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 노인 및 가족 부양 등의 가족돌봄 책임 뿐 아니라 여가 등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들이 지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다. 이러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갖춘 시설 및 공간의 물리적 환경 요소,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의 가족책임 및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비물리적 서비스 환경 요소, 그리고 사회적 교류 및 공조의 인적 네트워크의 사회적 환경 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가족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그리고 쾌적성을 갖춘 시설 및 공간의 물리적 환경,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의 가족 책임 및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비물리적 서비스 환경 그리고 사회적 교류 및 공조의 인적 네트워크 환경이 구비된 지역사회 환경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개념은 비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정보 교환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연결하는 교량적 체계를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존재를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은 이로서 필요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정보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주로 특히 물리적 환경 요소 즉,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지닌 개념으로, 따라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물리적 생활정보 네트워크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2. 생활정보 네트워크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간과하였던 기존의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개념과는 달리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기 위한 교량적 체계 측면을 강조하고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본다.

사회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들 간의 연결체계 즉, 네트워크를 통해 행위자들의 사회적 행위 특성을 설명한다(Mitchell, 1969; Barnes, 1979). 사회는 수많은 행위자들 간에 연결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연결체계 속에서 행위자들 간에 교환을 형성하며 상호작용한다. 여기에서 행위자들은 개인, 가족, 조직 혹은 기관 등이다. 교환의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자원으로, 자원은 예를 들어, 호의 혹은 정보 등과 같은 것이다(Kim, 1994; Kim & Han, 2002).

이들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기초한다(Kim, 1994; Wasserman & Faust, 1994; Prior, 1996; Klijn, 2001). 첫째,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는 행위자들

간에 작용하는 연결체계 즉, 네트워크이다. 둘째, 행위자들 간의 연결체계 즉, 네트워크는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의 이전이나 흐름을 위한 통로이다. 이 때 자원은 권력, 지위, 호의 혹은 도움, 지식, 정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에 자원은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으며 자원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셋째, 행위자들 간의 행동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이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 이유는 조직 행위자이건 혹은 개개 행위자이건 간에 다른 행위자가 소유한 자원없이 각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생활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의미를 시사한다. 첫째, 호의 혹은 정보 등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체계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지원하는 기관과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연결하는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시사한다. 둘째, 생활정보 네트워크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 자원이 이동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해 '생활정보' 자원이 이동함으로써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며 상호작용한다. 셋째,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정보가 이동됨으로서 달성되는 각자의 목적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지원하는 기관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를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들 가족은 획득한 생활정보에 의해 가족들이 필요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선택·이용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지원하는 기관은 의도하고자 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필요한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시사점을 종합하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들이 지원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3. 생활정보의 중요성 및 요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의 중요성과 이러한 생활정보가 생활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바람직한 여건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고, 어떻게 획득 가능한가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여건 즉, 생활정보 환경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는 가족이라는 소비 단위가 가족

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단 즉, 일종의 상품²⁾이라는 맥락에서 소비자정보³⁾ 문헌을 고찰한다.

소비자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품 즉,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은 선택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Jang & Ahn, 1998). 즉, 소비자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소비자는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소비자정보는 소비자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 및 확대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불만족을 줄이는 동시에 만족을 극대화시키며, 따라서 소비자 선택의 효용극대화라는 점에서 유용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 지식 혹은 사실이다(Song & Hwang, 2007). 이러한 소비자정보는 상품의 출현 및 존재, 판매장소, 가격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결합상품 등과 같은 위협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까지 포함하는 것(Park, 1996; Kim & Kim, 2004; Hur, et al., 2008; Bethell, 1994)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생활 관련 의사결정과 궁극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는 지역사회에서 생산·지원되는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존재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족 및 그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선택·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따라서 가족친화적 삶이 영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족 및 그 가족구성원들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소비자정보가 되기 위한 요건 즉, 소비자정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Maynes(1973)는 유용한 정보의 요건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여부,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 정보제공자와 정보획득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지적하였다. Swagler(1979)는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를 유용한 소비자정보가 되기 위한 극복 요건으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정보의 비용 문제로, 정보탐색 시 양질의 정

보가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성 문제로, 탐색된 정보는 소비자에게 내재화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과 연관된다. 셋째는 정보의 명확성 문제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 정보제공자와 정보획득자 간에 명확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정보 분석의 한계 문제로, 소비자들 간의 정보 획득 및 처리 능력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정보 검색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번째 요건은 소비자정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극복 요건이다. 유용한 소비자정보로서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을 소비자 입장에서 언급한 Song and Hwang(2007)은 정확성, 신뢰성, 적시성은 소비자정보의 핵심요소이며, 그 외 의사소통성, 경제성, 접근용이성, 다양성, 충분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정확성 및 신뢰성은 소비자정보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시성은 필요한 시기에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정보로 정보의 최신성을 포함한다. 또한 경제성은 정보에 드는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획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접근용이성은 용이하게 획득 가능해야 하고 누구든지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 및 충분성은 비교와 판단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언급된 소비자정보의 의미와 유용한 소비자정보로서의 요건은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의 중요성과 그 요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는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유용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므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가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가족친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생활정보 여건 즉,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적시성(최신성), 신뢰성(정확성), 접근용이성(경제성), 명확성(의사소통), 다양성, 충분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또한 필요하다.

2) 상품은 사용되고 소비됨으로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3) 소비자정보는 소비자라는 소비 단위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상품에 대한 정보로, 이 소비자정보를 토대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한다. 이에 소비자정보는 소비자의 욕구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소비자정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바람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ark, 1996; Kim & Kim, 2004; Hur, et al., 2008; Bethell, 1994).

III. 연구방법

1.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개념적 모형

이상에서 고찰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에 대한 기존 개념의 한계와 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다음과 같다.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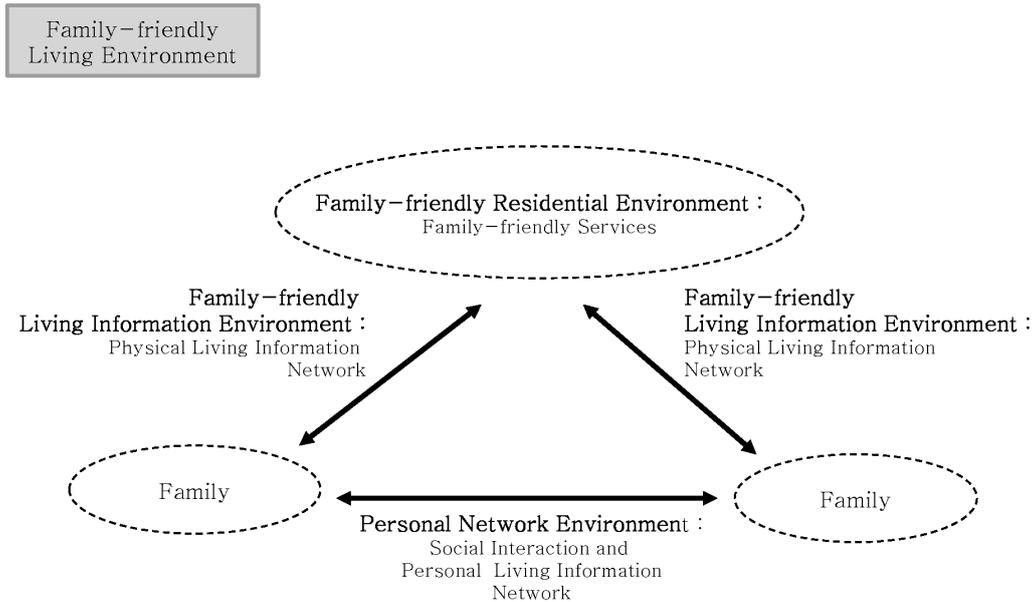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일과 가정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노인 및 가족 부양의 가족돌봄 책임, 여가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생활환경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3가지 요소 즉, 가족친화적 거주환경(family-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요소, 인적 네트워크 환경(personal network environment) 요소 그리고 생활정보 환경(family-friendly living information environment) 요소를 지닌다. 여기에서 가족친화적 거주환경은 다양한 형태 및 계층의 가족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역사회에서 지원되는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기타 가족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각종 시설 및 공간의 물리적 요소와 제도 및 프로그램 등 서비스 인프라의 비물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거주환경이다. 이 거주환경은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을 구비한다. 인적 네트워크 환경은 지역사회 가족들 간의 인적관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에서 인적 생활정보 네트워크의 의미를 또한 포함한다. 생활정보 환경은 다양한 물리적 수단을 통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가 제공되고 획득될 수 있는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이러한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고 획득되는 생활정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가족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생활정보 네트워크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생활정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등과 같은 생활정보 제공 여건과 어디

에서, 어떻게 획득·이용되는가 등과 같은 생활정보 획득 여건에 따라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의 역할 수행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바람직한 요건이 구비됨으로서 그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생활정보 네트워크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반드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이 조성된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개념화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모형화한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생활정보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탐색적 수준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파악한다.
- <연구문제 2>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생활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연구문제 3>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여건의 현주소와 개선 가능성을 파악한다.

3.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한 실천방안' 연구(Association of Korean Home Management, 2010)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던 자료이다. 원자료의 수집대상은 적어도 한 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남녀들이다. 이러한 대상선정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혹은 필요한 자녀보육 혹은 양육과 관련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고자 한 때문이다. 이들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201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구청 및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표집되었다. 표집된 조사대상 총 6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404부를 회수(61%)하였으며, 이 중 부실기재 등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자료는 384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84부의 조사 내용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4.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 자료, 생활정보 관련 영역 자료, 그리고 주거환경 영역에서의 일부 자료(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과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여기에서 생활정보는 주거환경 영역, 양육 및 교육 지원 영역, 그리고 가족지원 영역과 관련된 제반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이다.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의 실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사대상자에게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과 생활정보의 정의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생활정보 관련 영역은 크게 생활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 측면,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관한 인식 및 이용행태 측면, 향후 생활정보시스템 관련 인식 및 의향 측면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생활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 문항은 중요성, 필요성, 유용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문항은 이론적 고찰과 설문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성, 신뢰성, 접근용이성, 적시성, 명확성, 충실성, 가치성, 비교평가성을 포함하고, 이용행태 문항은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획득노력 및 원천을 포함한다. 생활정보 원천을 제외한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주거환경 영역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는 지역사회 거주환경 인식과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는 Sin(2010)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은 거주환경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4문항씩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거주환경이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이 높다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족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을 포함)을 구성하는 문항은 .912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그 하위영역으로 안전성은 .806, 편리성은 .834, 쾌적성은 .667, 접근성은 .780였다.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는 .803의 신뢰도를 보였다.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는 거주지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1문항,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거환경, 양육 및 교육 지원 환경, 가족지원 환경 및 생활정보 환경 요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 18.0 version이 사용되었다.

첫째,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3>은 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spearman의 순위상관관계 분석을 병행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의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생활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와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에 대한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서열척도 포함)일 경우 사용하는 회귀분석(Kim & Kang, 2008)으로, 종속변수인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는 4점 리커트 서열척도이며,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은 5점 서열척도이다. 여기에서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의 2점으로 구분하고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불만족 = 0; 만족 = 1),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은 '그렇다',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의 3점으로 구분하고 '모르겠다'를 기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또한 생활정보 인식 및 이용행태와 관련되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⁵⁾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은 통제

4)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영역, 주거환경 영역, 양육 및 교육 지원 영역, 가족지원 영역, 그리고 생활정보 관련 영역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 Sohn(1998),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2002)에 의하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정보 인식 및 행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로 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생활정보 요소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가 아닌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2LL(-2 Log Likelihood)값으로 추정되는 모형 적합도의 유의적 변화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즉, 생활정보 요소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 2)의 -2LL값이 생활정보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로지스틱 회귀분석(Model 1)의 -2LL값보다 유의미하게 작아진다면, 모형 적합성은 개선된 것으로, 이는 생활정보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생략), 성별은 여성이 81.3%, 남성이 18.8%로, 여성이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5.2%, 30대가 59.0%, 40대가 32.8%, 50대 이상이 2.3%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51세였다. 학력은 대졸이 6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이하(28.5%), 대학원 이상(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총 가계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0.6%, 300-400만원 미만이 31.4%, 400-500만원 미만이 19.3%, 500-600만원 미만이 8.2%, 600-700만원 미만이 4.5%, 700만원 이상이 6.1%였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계가 8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를 포함하는 3세대 가계(11.7%), 한부모 가계(5.3%), 기타(1.8%)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명(32.3%), 3명(14.3%), 4명(1.6%)의 순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1.9명으로, 첫 자녀 평균 연령은 9.3세였다. 여성의 취업은 취업 51.2%, 비취업 48.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터넷 사용여부의 경우, 조사대상자 대부분(90.3%)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에 9.7%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남자가 비교적 젊은 층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용도는 '최신 정보획득'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학습'(19.2%), '전자우편'(6.2%)의 순이었다.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는 '어느 정도 만족'이 68.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음'(16.5%), '매우

만족'(13.1%), '전혀 만족하지 않음'(1.8%)의 순이었다. 주거 환경, 양육 및 교육 지원 환경, 가족지원 환경, 생활정보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를 지역사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은 '그렇다'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15.9%), '매우 그렇다'(8.1%)의 순이었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

생활정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 및 이용행태는 생활정보가 지닌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 생활정보를 이용하는 행태가 어떠한가라는 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생활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Table 1> 참조), 생활정보는 대체로 중요(91.8%)하고, 필요(94.5%)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러한 생활정보는 생활 관련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생활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90.2%가 '그렇다'고 인식하였다. 생활정보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정보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유용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결과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들이 접한 생활정보의 유용성 정도에 근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즉, 조사대상자들이 접한 생활정보의 유용성 정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성을 고려한 생활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2>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정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생활정보가 충분한가는 '그렇다'가 35.3%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가 64.6%였고, 생활정보 내용이 다양한가는 '그렇다'가 37.3%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가 62.5%로

Table 1. Perception of Value on Living Inform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importance	5 (1.3)	26 (6.8)	239 (62.9)	110 (28.9)	3.19 (.611)
necessity	5 (1.3)	18 (4.8)	233 (61.6)	122 (32.3)	3.25 (.602)
usefulness	7 (1.9)	31 (8.2)	270 (71.6)	69 (18.3)	3.06 (.580)

Table 2. Perception of Living Information in Communi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sufficiency	30 (8.0)	213 (56.6)	131 (34.8)	2 (0.5)	2.28 (.610)
variety	28 (7.3)	207 (55.2)	137 (36.5)	3 (0.8)	2.31 (.616)
value	20 (5.3)	111 (29.6)	213 (56.8)	31 (8.3)	2.68 (.701)
comparison evaluation	33 (8.8)	167 (44.4)	165 (43.9)	11 (2.9)	2.41 (.691)
reliability	17 (4.5)	126 (33.5)	225 (59.8)	8 (2.1)	2.60 (.621)
accessibility	28 (7.4)	165 (43.9)	177 (47.1)	6 (1.6)	2.43 (.653)
proper timing/newest	21 (5.6)	166 (44.4)	182 (48.7)	5 (1.3)	2.46 (.623)
rich content	17 (4.5)	147 (39.1)	201 (53.5)	11 (2.9)	2.55 (.631)
clarity	19 (5.1)	125 (33.3)	231 (60.5)	4 (1.1)	2.58 (.607)

Table 3. Behavior related to Usage of Living Informa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search capability	12 (3.2)	130 (34.7)	195 (52.0)	38 (10.1)	2.69 (.694)
usage	13 (3.5)	77 (20.5)	228 (60.6)	58 (15.4)	2.88 (.696)
sharing	25 (6.7)	87 (23.5)	239 (64.4)	20 (5.4)	2.68 (.678)
effort for acquisition	13 (3.5)	105 (27.9)	217 (57.7)	41 (10.9)	2.76 (.686)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더 많았다. 그 외에 선택결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생활정보 제공인가의 가치성은 '그렇다'가 65.1%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가 34.9%였다.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들을 평가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의 비교 평가한 생활정보는 '그렇다'가 46.8%였고, '그렇지 않다'가 53.2%였다.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믿을 만한가의 신뢰성은 '그렇다'가 61.9%였고, '그렇지 않다'가 53.2%였다. 필요한 생활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는가의 접근용이성은 '그렇다'가 48.7%였고, '그렇지 않다'가 51.3%였다. 최신의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의 최신성/적시성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50.0%였다. 제공되는 생활정보가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의 내용 충실성은 '그렇다'가 56.4%였고, '그렇지 않다'가 43.6%였다.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이해하기 쉬운가의 명확성 혹은 의사소통은 '그렇다'가 61.6%였고, '그렇지 않다'가 38.4%였다. 지역사회 생활정보의 가치성, 비교평가성, 신뢰성, 접근용이성, 내용 충실성 및 명확성(의사소통)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인식 결과는 비록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혹은 얻을 수 있는 생활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문항별 평균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각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특히, 생활정보의 충분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 문항별 평균에서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주목할 만한 점이다.

<Table 3, 4, 5, 6>은 생활정보 이용행태와 관련된 분석결과이다. 먼저 <Table 3>의 생활정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필요한 생활정보를 잘 찾는가의 생활정보 검색능력 정도는 '그렇다'가 62.1%였고, '그렇지 않다'가 37.9%였다.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생활정보를 활용하는가의 생활정보 활용 정도는 '그렇다'가 76.0%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가 24.0%로, 비교적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비교적 젊은 층으로 인터넷 사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공유하는가는 '그렇다'가 69.3%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가 30.7%로, 생활정보 공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정보 공유 결과는 생활정보 제공에 있어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각 문항별 평균을 보면,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기는 하나 활

Table 4. Reason of Non-Effort for Acquiring Living Information

(n=118)

reason	1st.	2nd.	3th.
	n (%)	n (%)	n (%)
do not know what and where	53 (51.5) ①	5 (6.3)	6 (8.7)
no person/organization for acquisition around	12 (11.7)	14 (17.5)	7 (10.1)
do not know how to acquire	4 (3.9)	27 (33.8) ①	13 (18.8)
need to make effort for acquisition	9 (8.7)	17 (21.3)	9 (13.0)
no time for search	11 (10.7)	12 (15.0)	15 (21.7) ①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making a judge	4 (3.9)	1 (1.3)	5 (7.2)
no need	9 (8.7)	3 (3.8)	1 (1.4)
others	1 (1.0)	1 (1.3)	0 (0.0)

Table 5. Source for Acquiring Living Information

source	1st.	2nd.	3th.	
	F (%)	F (%)	F (%)	
(mass) media	PC, Internet	155 (50.2) ①	27 (9.4)	15 (6.0)
	newspaper	34 (11.0)	60 (20.8)	15 (6.0)
	magazine	1 (0.3)	6 (2.1)	8 (3.2)
	TV	17 (5.5)	22 (7.6)	17 (6.8)
	cable TV	0 (0.0)	22 (7.6)	14 (5.6)
	radio	0 (0.0)	2 (0.7)	4 (1.6)
	DMB	0 (0.0)	5 (1.7)	2 (0.8)
	personal	family, colleague, friend	65 (21.0)	64 (22.2) ①
meeting		2 (0.5)	5 (1.7)	15 (6.0)
school teacher		2 (0.5)	8 (2.8)	15 (6.0)
civic servant in Gu/Dong office		3 (1.0)	4 (1.4)	9 (3.6)
institution	community center	19 (6.1)	44 (15.3)	24 (9.4)
	Homepage of Gu office	1 (0.3)	6 (2.1)	29 (11.6)
	community welfare center	6 (1.9)	8 (2.8)	27 (10.8)
	NGO center	0 (0.0)	1 (0.3)	1 (0.4)
	community library	0 (0.0)	1 (0.3)	8 (3.2)
others	4 (1.3)	3 (1.0)	12 (4.8)	

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생활정보를 얻고자 노력하는가는 조사대상자의 68.6%가 '그렇다'고 한 반면에 31.4%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된 생활정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유용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Table 4> 참조), 1순위 이유는 '어디에서 어떤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름'이 51.5%로 가장 많았고, 2순위 이유는 '생활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름'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3순위 이유는 '생활정보를 찾을 시간이 없음'이 21.7%로 가장

많았다. 특히, 1순위와 2순위는 필요한 생활정보를 확보하는 정확한 정보원을 모른다는 문제와 어떻게 생활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검색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문제로, 생활정보 관련 정보원천 및 검색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자의 생활정보 획득 원천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생활정보 획득 원천으로 1순위는 'PC통신과 인터넷'(79.8%)으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와 3순위는 '가족, 동료 혹은 친지'(각각 30.2%, 20.2%)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 정보원이 인적 정보원보다 더 중요한 생활정보 획득 원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Table 6. Reason of the 1st Source for Acquiring Living Information

reason	1st.	2nd.	3th.
	F (%)	F (%)	F (%)
easy to acquire	233 (79.8) ①	20 (7.8)	4 (1.6)
reliability	21 (7.2)	78 (30.2) ①	16 (6.6)
no cost	6 (2.1)	54 (20.9)	49 (20.2) ①
diversity	8 (2.7)	48 (18.6)	44 (18.1)
plentiful	1 (0.3)	25 (9.7)	28 (11.5)
the latest	12 (4.1)	12 (4.7)	37 (15.2)
easy to understand	4 (1.4)	17 (6.6)	36 (14.8)
valuable living information	5 (1.7)	3 (1.2)	17 (7.0)
others	2 (0.7)	1 (0.4)	12(4.9)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and Usage Behavior of Living Information

	perception of value	perception of living information in community	usage behavior
perception of value	1		
perception of living information in community	.301***	1	
usage behavior	.317***	.431***	1

***p < .001

이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최신 정보획득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장 큰 용도이었던 점(Ⅲ. 연구방법의 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참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생활정보 획득 원천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생활정보 네트워크가 생활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생활정보를 획득하는 1순위 원천(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Table 6> 참조), 1순위는 '정보 얻기가 쉬워서'가 79.8%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믿을 만한 정보 제공'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3순위는 '비용이 들지 않아'(20.9%)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정보 환경은 생활정보의 획득용이성 혹은 접근용이성, 생활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생활정보 획득의 경제성을 고려한 생활정보 제공 여건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able 7>은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분석한 결과로,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은 생활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용행태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생활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Table 1>의 생활정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합산하여 사용

하였고,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은 <Table 2>의 지역사회 생활정보의 충분성, 다양성, 가치성, 비교평가성, 신뢰성, 접근용이성, 적시성/최신성, 내용충실성 및 명확성에 대한 인식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생활정보 이용행태는 <Table 3>의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상관계수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생활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생활정보 이용행태,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과 생활정보 이용행태 모두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정보가 지닌 가치를 고려한다면,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서 이용행태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생활정보의 중요성

<Table 8, 9>는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Figure 1>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물리적 생활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파악

Table 8.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Model 1: satisfaction to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 ¹⁾	Model 2: satisfaction to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 ¹⁾
constant		-7.906***	-8.964***
sex: male		.713	.645
age		.130***	.133***
education ²⁾	high	.313	.190
	graduate	-.708	-.723
household income ²⁾	low	-.563	-.572
	high	.428	.333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095***	.080**
personal network in community		.088	.101
perception of living information in community			.123*
Chi-square		48.155***	52.994***
df		8	9
Nagelkerke R ²		.211	.241
-2 Log Likelihood		279.546	257.642

* $p < .05$, ** $p < .01$, *** $p < .001$

1) dissatisfaction = 0; satisfaction = 1

2) education: university(reference); household income: middle(reference)

Table 9.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Model 1: perception of components of residential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¹⁾		Model 2: perception of components of residential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¹⁾	
		disagree	agree	disagree	agree
constant		1.427	-3.987**	2.553	-4.406
sex: male		-1.125*	-.545	-1.374*	-.500
age		.024	.060*	.011	.055*
education ²⁾	high	-.158	.125	-.391	.064
	graduate	1.101*	-.162	1.155*	-.160
household income ²⁾	low	.276	-.064	.471	.008
	high	.312	.146	.265	.083
percep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092***	.062**	-.125*	.039
personal network in community		.082	.008	.075	.015
perception of living information in community				.058	.110*
Chi-square		65.397***		76.444***	
df		16		18	
Nagelkerke R ²		.197		.234	
-2 Log Likelihood		621.828		585.942	

* $p < .05$, ** $p < .01$, *** $p < .001$

1) reference category of perception of components of residential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is a category of Don't Know

2) education: university(reference); household income: middle(reference)

하고자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Table 8>의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Model 2)의 -2LL 값이 포함하지 않은 모형(Model 1)의 -2LL 값보다 유의미하게 작아져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 변수를 포함한 Model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과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의 지역사회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가 '만족'일 확률이 높았고, 지역사회의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가 '만족'일 확률이 높았다.

'모르겠다'를 기준으로 분석한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9> 참조)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 변수를 포함한 모형(Model 2)의 -2LL 값이 포함하지 않은 모형(Model 1)의 -2LL 값보다 유의미하게 작아져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생활정보 인식 변수를 포함한 Model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인식은 '그렇지 않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의 지역사회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거환경, 양육 및 교육 지원 환경, 가족지원 환경 및 생활정보 환경 요소를 갖고 있는가에 '그렇지 않다'고 인식할 확률이 낮았다. 한편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거환경, 양육 및 교육 지원 환경, 가족지원 환경 및 생활정보 환경 요소를 갖고 있는가에 '그렇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에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환경 요소로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및 접근성의 지역사회 거주환경 요소와 더불어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생활정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환경

그렇다면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현재의 생활정보 여건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 생활정보 이용 관련 실태와 생활정보 관련 인터넷 정보시스템 이용의사 및 역할 담당자를 살펴보았다. 먼저 <Table 10>은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생활정보를 얻고자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을 하는가는 '그렇다'가 58.7%였고, '그렇지 않다'가 41.3%였다. 또한 필요한 생활정보를 지역사회 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등)이나 지역복지관 등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얻고자 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을 파악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이 조사대상자의 4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화(30.1%), 직접 방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Ⅲ. 연구방법의 5.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참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리적 생활정보 네트워크 조성 시 지역사회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기타 복지관 등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생활정보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다(<Table 10> 참조).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는 원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평균 2.49,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의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은 평균 2.45,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의 이용자 친화적 생활정보 제공은 평균 2.50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수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생활정보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생활정보가 수요자 중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역사회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아직도 규격화되고 양적으로 중복된 생활정보의 전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정보 제공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1>은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가 과연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허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 분석결과이다. 지역사회에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을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무료라면 이용할 것임'이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렴하다면 이용할 것임'(28.3%), '비용과 무관하게 이용할 것임'(9.8%), 그리고 '전혀 이용할 의사가 없음'(3.5%)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비용의 문제만 조정된다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생활정보 획득에 있어 특정 정보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획득의 경제성(비용이 들지 않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Table 10. Living Information in Internet Site of Center in Community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mean (SD)
		n (%)	n (%)	n (%)	n (%)	
search in homepage of facilities in community		27 (7.2)	128 (34.1)	190 (50.7)	30 (8.0)	2.59 (.739)
homepage	hoped-for	24 (6.3)	151 (39.6)	198 (52.0)	8 (2.1)	2.49 (.643)
	variety	25 (6.6)	165 (43.5)	180 (47.5)	9 (2.4)	2.45 (.654)
	user-friendly	17 (4.5)	162 (42.5)	197 (51.7)	5 (1.3)	2.50 (.604)
way to use	telephone	116 (30.7)				
	visiting	54 (14.3)				
	internet homepage	179 (47.4)				
	interview/counseling with social worker/civic servant	10 (2.6)				
	others	3 (0.8)				
	never	16 (4.2)				

Table 11. Usage Intention and Leading Roler of Internet Information System

		n (%)
usage intention	will use it, regardless of fee	36 (9.8)
	will use it, if free	214 (58.3)
	will use it, if not expensive	104 (28.3)
	will not use it at all	13 (3.5)
roler	central, local government	142 (37.5)
	resident-leading	29 (7.7)
	resident-leading and utilization of facility in community	208 (54.9)

<Table 6>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또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촉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 기반시설 활용'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Jo, Jung, and Han (2009)은 현재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사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총체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지역사회 기관 홈페이지 및 주도적 역할 담당자의 분석결과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에 있어 다양한 각종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통합 인터넷 정보시스템의 허브적 역할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더불어 동시에 생활정보 제공의 주도적 역할 담당자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Table 3>에서 보여준 생활정보 공유 정도의 결과

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산에 주로 초점을 두어 온 반면에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생활정보 지원 측면은 간과되는 경향이었고, 이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탐색적 수준에서 먼저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생활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제공 및 획득 여건 및 그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정보의 가치(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았다. 한편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생활정보의 충분성과 다양성에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생활정보의 가치성, 비교평가성, 신뢰성, 접근용이성, 내용 충실성, 명확성(의사소통)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 줄 모름'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름'의 순이었다. 생활정보의 가치 및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 정도가 높았다. 생활정보 획득의 원천으로 'PC통신과 인터넷'이 1순위였으며, 2순위와 3순위는 동일하게 '가족, 동료 혹은 친지'였다. 생활정보를 획득하는 1순위의 원천(PC통신과 인터넷) 이유는 '정보 얻기가 쉬워서'가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 및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생활정보를 얻고자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의 홈페이지 검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필요한 생활정보를 지역사회 공공기관(구청, 동사무소 등)이나 지역복지관 등에서 얻고자 할 때 주된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이었다. 또한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기타 복지관 등의 홈페이지는 원하는 생활정보, 다양한 생활정보,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이용자 친화적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비용 상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사회에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관련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이용의사가 있었다. 또한 가족친화 생활환경을 촉진시키는 주도적 역할 담당자로 '주민 주도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활용'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그 구성요소 중 하나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따라서 생활정보 네트워크 환경은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정보 네트워크 환경이 지역사회 가족들이 가족친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여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생활정보 제공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하여 생활정보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활용이다.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 및 형태의 가족들이 그 지역의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허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그 시설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활용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Table 6> 참조)에서 보여준 생활정보 획득의 1순위 원천 선택의 이유로 언급된 접근용이성 및 비용경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정보 환경 조성이다. 지역사회의 생활정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획득하는 쌍방향적 생활정보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쌍방향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의 가능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활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공유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Table 3>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수요자 친화적 생활정보 제공이다.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공급자 중심적 형태 및 내용이 아니라 생활정보 수요자 혹은 생활정보 획득자 친화적 생활정보 형태 및 내용이어야 한다. 이는 유용한 생활정보로서의 요건을 갖춘 생활정보 형태 및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성, 충실성, 다양성, 신뢰성, 접근용이성, 적시성(최신성), 명확성(의사소통), 가치성 및 비교평가성의 생활정보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생활정보 획득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 생활정보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각종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첫째, 생활정보 수요자 혹은 획득자에 대한 생활정보의 가치 관련 홍보 및 인식 교육이다. 생활정보의 가치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교육은 생활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생활정보 이용행태,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과 생활정보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결과(<Table 7> 참조)에서 보여준 생활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 정도가 높다는 점과 지역사회 생활정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생활정보 검색능력, 활용, 공유 및 획득노력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생활정보 수요자 혹은 획득자에 대한 생활정보의 원천 및 검색방법 교육이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생활정보를 검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 중 1순위와 2순위는 '어디에서 어떤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름'의 문제 즉, 필요한 생활정보를 확보하는 정확한 정보원천을 모르는 문제, 그리고 '생활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름'의 검색방법 자체를 모르는 문제였다(<Table 4> 참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정보 관련 정보원천 및 검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의 및 한계를 짚어보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으로 대체로 전반적인 경향 분석에 머물러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하기는 하지만,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가족친화적 생활환경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되며 그 의미가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은 그 구성요소 중 하나로 생활정보 네트워크 요소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며, 둘째는 생활정보 환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토대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자료 관련 세 가지 한계를 지니며 향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Association of Korean Home Management, 2010)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던 자료로 본 연구가 심도있는 분석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의 측면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생활정보 관련 영역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영역들을 포함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자료수집 제한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과 같은 보다 심도있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라는 점에 한계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주로 전반적인 경향 분석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좀 더 보완한 자료수집으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세부적인 분석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Association of Korean Home Management, 2010)의 자료수집 조사대상을 '적어도 한 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기혼 남녀'로 의도적 표집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들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연령층을 포함하는 조사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친화적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생활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속변수로 사용한 거주지 생활환경 만족도 및 거주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요소 인식은 각각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이를 보완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인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Association of Korean Home

Management, 2010) 자료의 조사대상은 생활정보 수요자 혹은 획득자만으로, 생활정보 제공자 즉,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의 생활정보 제공 기관의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가족친화적 생활정보 환경 조성은 단순히 생활정보 수요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족친화 관련 서비스에 관한 생활정보 수요자 혹은 획득자와 더불어 이러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도 함께 병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derson, R. & Carter, I.(1990).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A social system approa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Association of Korean Home Management.(2010). A study on the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The 47th proceeding. Association of Korean Language(2002). *Korean Dictionary*. Min-jung-seo-rim.
- Barnes, J.(1979). Network analysis. In Holland, P. & Leinhardt, S.(Eds.), *Perspectives on social network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Bethell, V.(1994). *The consumer revolution redressing the balance*. Hodder & Stoughton.
- Cha, S.(2010). Model and key component for developing family friendly community, *Journal of Home Management*, 8(2), 63-76.
- Hong, S. Kim, H. Rue, Y. Sang, M. Jo, S. & Jin, M.(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family-friendly community mode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ur, K. Kim, H. Kim, S. Jung, S. & Park, S.(2008). *Consumer information*. Power Book.
- Hutchinson, E. & Charlesworth, L.(1988).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role of gender in the expansion of practice knowledge. In Figueira-McDonough, J. Netting, F. & Nichols-Casebolt, A.(Eds.). *The role of gender in practice knowledge: Claiming half the human experience*. New York: Garland, 41-92.

- Jang, H. & Ahn, S.(1998). *Modern consumers*. Sam-Young Co.
- Jo, S. Jung, J. & Han, J.(2009). The study on supporting situation of the community child care service for the work-family balance - Focused on dual income famili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7-168.
- Kang, S.(2007). The need and main contents for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he proceedings of the law for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 Kim, D. & Kang, N.(2008), *Regression Analysis: Basics and Applications*, Nanam.
- Kim, H. & Han, E.(2002). Community social welfare from the network theor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social welfar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4(1), 99-122.
- Kim, K. Kim, N. & Lee, S.(2004). *Consumer information in digital society*. Sigma Press.
- Kim, S. Jang, J. & Ju, Y.(2001). The analysis of living information on the web site. 2(4), *Journal of Korean Junior College Education Studies*, 647-662.
- Kim, Y.(1994). *Social structure and behavior*. Nanam.
- Klijn, E.(2001). Rules as institutional context for decision making in networks, *Administration and Society*, 33(2), 133-164.
- Lee, S. Kim, H. Lee, K. Kwag, Y. & Jung, Y.(2009). A study on developing family-friendly community mode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aynes, E.(1973). *Decision-making for consumers*.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ERIC. (2002). A study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public use o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Project ICT 2001-1, RR2001-9.
-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2008). The law on the promotion for korean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Department of Family Policy. 02-2023-8587.
- Mitchell, J.(1969). The concept and use of social networks. In Mitchell, C.(Ed.).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 Manchester: Manchester Press.
- Park, M.(1996). *Consumer decision-making*. Hakhyoun.
- Park, S.(2007). Concept of family-friendly community and Suggestion of evaluation indicat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port.
- Park, S.(2009). A project for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The 46th proceeding, 3-14.
- Prior, D.(1996). Working the network: Local authority strategies in the reticulated local state. In David, H.(Ed.). *QUANCOs and local government*, London: Frank Cass.
- Sin, H.(2010). Evaluation study on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family-friendly living environment.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The 47th proceeding, 37-53.
- Sin, D. Han, S. Kim, J. Lee, H. & Kim, M.(2004). A study on developing information network system for community welfar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3(13), 21-38.
- Sohn, Y.(1998). Survey on the use of PC communication and the user's satisfaction. Korean Information & Culture Center.
- Song, S. & Whang, E.(2007). Suggestion for the new direction of consumer information policy. Policy Study 07-07. Korea Consumer Agency.
- Swagler, R.(1979). *Consumers and the market*, Lexington, Massachusetts: Health and Company.
- Wasserman, S. & Faust, K.(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Press.

접수일 : 2013년 06월 08일

심사일 : 2013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15일